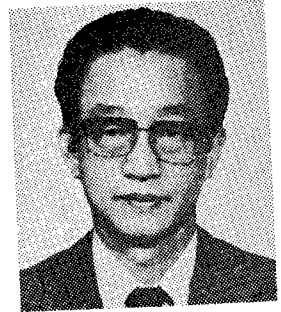


民間技術用役의 活性化를 위하여

李 漢 永

(韓國農工學會 理事)



우리나라 農業土木產業에 實質的인 技術用役制度가 成立된지도 今年으로서 58年이라는 長久한 歷史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技術用役의 形態는 한마디로 特定된 代行機關에 의하여 專擔體制로서 一貫되어 왔다는 點이 特色이다.

通常的으로 이와 같은 代行機關의 設立이나 體制의 背景은 公共事業의 量的인 增大 또는 多樣化, 複雜化等에 對應하기 위한 物理的인 必要性에 起因하게 된다.

즉 民間의 技術能力이나 資本力 등이 貧弱한 社會經濟的인 與件 밑에서 事業을 執行하기 위한 不得已한 對應策의 한 方便이 代行機關의 設立이며 이에 따른 專擔體制는 結果的으로 그 業務에 있어서의 獨占化라는 特權을 賦與받게 된다.

現在 農業土木界의 技術用役業體로 登錄된 民間企業體는 所謂 綜合 또는 專門業體를 合하여 總 14個社가 있으며 그 中 7個業體는 技術人力面에서 볼때 10人以下를 保有하고 있는 業體들이다. 그리고 農業土木의 專門業體에 屬하는 이 零細한 業體들은 地方自治團體인 市郡에서 發注하는 小規模의 農業用水事業이나 耕地整理事業 등이 主된 用役對象이 되고 있으며 한 業體當의 平均 年間 受注量은 約 5~6千萬원에 不遇한 實情이다.

農業土木의 民間技術用役問題를 論할 때 或者는 現實的인 業體의 脆弱點이라고 할 수 있는 技術人力과 資本能力의 貧弱性 또는 그 實績, 經驗의 不足等만을 指摘하면서 否定的인 側面에서 單 舉論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零細性에 對한 源泉的인 要因이란 바로 代行機關에 의한 技術用役의 獨占化에 있다는 事實을 看過하여서는 않된다 하겠다.

日帝以來 半世紀가 넘는 동안에 뿌리깊이 내려진 獨占化 體制下에서는 相對的으로 民間技術用役이 極度로 貧弱化 될 수 밖에 없으며 零細性 脫皮란 期待할 수가 없다고 하겠다.

技術用役의 民間開放이란 民間業界의 保護育成이라는 次元보다도 技術開發의 促進과 技術의 社會的인 擴散을 위한다는 面에서 보아야 한다. 先進諸國을 비롯한 國際的인 趨勢나 國內의 他 技術分野에서는 이미 技術用役의 民間開放이 一般化된 體制로 定着되고 있다.

其間 우리 農業土木界에 있어서 民間技術은 크게 蓄積되고 있으며 適切한 業務量만 있다면 企業化를 위한 資本能力의 潛在力과 더불어 民間技術用役은 發展될 수 있는 位置에 놓여있다고 생각 된다. 그 뿐 아니라 民間主導的인 經濟開發施策은 現下 國家가 指向하고 있는 基本的인 政策 目標라는 點를 想起해볼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民間技術人力의 潛在力을 우선 技術人力面에서 보면 專門大學以上の 農業土木技術人力은 1970年代 初盤까지만 하여도 約 100餘名 程度에 不遇하였던 것이 1982년에는 548名으로 5倍以上이 增加하였고 質, 量 面에서 이와 같은 技術人力의 輩出은 앞으로도 繼續될 것이 豫想된다.

또한 農業振興公社를 비롯한 各 機關에서 輩出되는 停年退職者等の 技術人力도 每年 增加되는 趨勢에 있다. 이들의 平均年齡이란 50代에 屬하는 成熟된 技術者들로서 豊富한 經驗과 技術을 保有한 優秀한 人材들이다. 이들의 豊富한 經驗이란 無形의 財産이며 技術的인 活用價值面에서 가장 成熟된 技術能力을 발휘할 수 있는 年代라 하겠다.

이와 같이 民間技術人力의 擴大趨勢는 農業土木技術能力의 活用이라는 社會發展的인 側面에서도 民間技術用役의 育成으로서 收容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同一한 建設技術部門에 屬하면서도 民間技術用役體制로 運營하고 있는 一般土木分野에서는 停年技術者の 活用을 위하여 一部 工事監理業務마저도 民間用役對象으로 開放할 것을 計劃(公團設立)하고 있다는 事實은 他山之石으로 볼것 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民間技術用役의 活性化를 위하여서는 民間技術界의 資質向上과 經營基盤의 確立이 基本的인 課題가 된다.

技術用役이 自由經濟體制下에서 企業으로서의 安定된 經營基盤을 確立하기 위하여서는 商品의 優秀性 卓越性이 重要한 것과 같이 商品이라고 할 수 있는 技術力의 強化, 新技術의 開發이 가장 重要한 課題이다.

따라서 技術用役에 從事하는 技術人은 그 資質向上을 위하여 새로운 發想을 가지고 計劃과 設計를 高度化, 多樣化 하면서 現場에 가장 適合한 技術을 創造하려는 努力을 傾注하여야 한다.

또한 經營基盤의 確立이 技術力의 強化나 開發에 根本的인 條件이 된다는 點에서 業體는 健實한 經營基盤의 構築에 不斷한 努力이 必要하다.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現在의 零細한 業體間의 統廢合을 이룩하여 經營基盤을 強化하고 나아가서는 技術의 分化와 擴大再生産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誘導되어야 하겠다.

우리 農本土木界의 一角에서는 아직도 技術用役을 單純한 設計의 代行이거나 또는 技術士단의 特權業務인 것 같이 誤認하고 있는 事例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思考가 民間技術用役의 活性化에 적지않은 影響을 끼치고 있는 것이 또한 事實이다.

그러나 眞正한 意味에서의 民間技術用役의 範圍는 單純한 設計에 限定되는 것이 아니라 技術을 바탕으로 하는 基本計劃의 樹立, 研究, 分析, 評價를 위시하여 事業에 對한 資料의 蒐集 및 記錄等に 이르기 까지 廣域性을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技術士단 그 技術部門의 應用能力에 對한 資格을 指稱하는 것이지 결코 그 專門分野에 있어서의 精通度나 技術의 水準도가 越等하게 높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技術用役育成法의 趣旨나 內容이 이를 立證하고 있다.

最近 政府當局이나 農振公에서도 民間業體의 育성과 業務의 民間用役開放을 위한 計劃이 眞摯하게 研究檢討되고 있다는 것은 農業土木事業의 發展과 活性化를 위하여 매우 鼓舞的이며 多幸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에 副應하여 民間業體들도 經營基盤의 確立을 위한 自發的인 統廢合이 이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